조병규 "유준상 보며 연기 공부…첫 주인공 기적 같아"

'소문' 연기는 "50~60점…'울보 히어로' 반응 좋아"

"몸무게 13kg 빠져…액션할 때 장점·밤되면 피곤"

"교복 잘 소화했으면 갈망에 비타민 꾸준히 복용"

"시즌2 기대된다…완벽한 카운터로 돌아오겠다"

"'경이로운 소문'은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걸 일깨워줬다. 시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을 작품이다."

OCN 주말극 '경이로운 소문' 종영 온라인 인터뷰를 한 배우 조병규는 "'경이로운 소문' 작품에서 너무 많은 걸 얻었다. 이 작품이 내 마음 속에 자리잡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종영한 '경이로운 소문'은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국숫집 직원으로 위장해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땀내나는 악귀타파 히어로물이다. 최종회 11.0%(닐슨코리아, 전국)로 OCN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조병규는 극중 카운터 막내 '소문'을 맡았다.

그는 OCN 첫 작품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데 대해 '감개무량'하다고 감격해 했다.

"카운터, 악귀 등 배우들 뿐 아니라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협동심이 너무 좋았다"며 "그런 분위기가 영상을 뚫고 대중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인기 비결을 전했다.

"'경이로운 소문'은 배우 조병규에게 있어 앞으로 배우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지치고 외로운 순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다. 너무나 좋은 기억들로 나 자신에게 큰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

첫 주연작으로 심적 부담이 컸다고 고백했다. "사실 제목에 배역 이름이 있다는 게 저를 힘들게 했다.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 첫 촬영 전 밤잠을 설치며 대본에 매달렸다."

자신의 '소문' 연기는 "50~60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소문이라는 웹툰 만화의 캐릭터를 잘 표현해냈나를 생각해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큰 점수는 못주겠고 한 반토막, 50~60점 정도 줄 수 있겠다."

소문은 그간 맡은 역할 중 가장 많은 눈물을 보인 역할이다. 그는 "'울보 히어로'라는 칭호를 들었는데,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큰 마음의 울림을 주는 단어"라며 "소문은 그 단어의 집약체 같다"고 말했다.

최종회에서 카운터즈가 다같이 정장을 입은 데 대해서는 "소문이는 아직 멀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인이고 정장이 잘 어울렸는데 소문이 혼자 고교생이 마치 히어로인 척 하며 정장 입고 날뛰는 것처럼 신나보였다. 조병규로서 정장은 좋았지만, 소문이는 연륜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소문의 성격 표현이 가장 어려웠다. 그는 "드라마가 판타지 장르를 표방하지만 사실 악귀, 초월적 힘 등은 요즘 세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라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소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스럽다"고 털어놨다.

"약자인 소문이는 강자에게도 굉장히 정의로운 소리를 내고 맞서주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현실에서 존재할까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다. 소문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만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오그라들지 않게 표현하느냐는 한끝 차이 연기라 심혈을 기울였다."

드라마 시작 전 유준상과 함께 운동하면서 10kg을 감량했다. 여기에 작품 촬영을 하며 결과적으로 13kg이 빠졌다.

"10kg을 감량한 뒤 드라마를 하는 동안 아무리 먹어도 찌질 않았다. 에너지 소비도 많고, 계속 빠져서 결과적으로 13kg이 빠진 채 종영했다."

체중 감량의 장단점을 묻자 "액션할 때 큰 장점이 됐다. 몸이 가벼우니 스피드도 나고 점프력도 높아졌다. 단점은 밤이 되면 피곤하고, 오랜 시간 액션을 하면 지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카운터 특유의 곱슬머리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원작 카운터들의 머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면 자칫 촌스럽지 않을까 하는 고뇌가 있었다"며 "파마를 했을때 어떻게 하면 트렌디하게, 소문의 귀여운 모습을 살릴 수 있을까 노력했다. 7, 8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머리"라고 설명했다.

1996년생, 25세지만 '스카이캐슬'에 이어 연달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역할을 소화했다.

"교복을 잘 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컸다. 최대한 젊게 보이려고 비타민, 오메가3 등을 꾸준히 복용했다. 다른 작품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었다."

특히 '동안' 평가에 대해 "교복을 또 한 번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단점 없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액션신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그는 "전작 '독고 리와인드'가 전형적 액션만을 다룬 장르였는데 그때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그때 서울 액션스쿨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곳이었다. 두 번째 하는거라 그때보다는 수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타민을 먹는게 젊음 유지뿐 아니라 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며 "갖가지 아대도 많이 샀다. 제 몸을 지키기 위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함께 카운터즈로 활동한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에 대해서도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유준상은 '경이로운 소문'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연기학도로서 유준상을 보며 많은 공부를 했다"며 "촬영하면서 단 한 순간도 대들보, 촬영의 중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치켜세웠다.

김세정과는 동갑이었지만 많은 의지를 했다. "이 친구의 재능은 정말 매 순간 경이로웠다. 작곡, 작사, 노래,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최고값의 재능을 갖고 있어서 부러웠다. 매 신마다 그 친구와 연기하며 의지도 많이 했고 많이 배웠다."

염혜란에 대해서는 "다수 작품에 같이 출연했지만 정작 호흡하는 장면은 없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고만 생각했다"며 "연기의 교본같은 분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에 대해 원없이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지원과는 '스카이캐슬'에 이어 두 번째 호흡을 맞췄다. 그는 "스카이캐슬 때 그 친구의 강심장, 연기가 굉장히 경이롭다 생각했다"며 "정말 재능있는 친구다. 이번에 '베프'로 같이 호흡하면서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잘 배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세정과의 로맨스가 아쉽진 않을까. 그는 "드라마 자체가 악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하고 악귀를 타파하는 히어로물이라 생사를 오고가는 순간이 많아서 거기에 로맨스가 들어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고 판단했다.

단 "무거운 장면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질 수 있을때 잠깐 실수처럼 로맨스가 들어가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호평 속에 종영한 '경이로운 소문'이었지만 후반부 작가 교체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배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본을 받고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것"이라며 "후반부 촬영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어떻게 하면 대본에서 최선의 장면을 도출할까에만 최대한 집중했다"고 전했다.

시즌2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소문이 소년에서 한 단계 성장한 이후 완벽한 카운터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다."

'경이로운 소문'이 넷플릭스에서도 선전하면서 해외 팬들도 많이 생겼다.

"최근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했는데 그 범인이 해외 팬이었다. 그래서 해외 팬이 많아졌다는 확실한 실감이 났다. 해외, 국내 팬분들이 인스타그램 본사에 신고 요청을 해줘서 일 진행이 빨랐다. 그래서 빨리 복구가 된 것 같다."

'놀면 뭐하니?', '범인은 바로 너 시즌3' 등 예능에 모습을 보이며 일약 '유재석 라인'으로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예능인을 동경해 왔다. 사실 지금도 드라마, 영화보다 예능을 더 많이 찾아보는 편이다. '무한도전 키즈'이기도 하고, 유느님을 동경한다.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겠다."

20대 배우 중 몇 안 되는 '다작 배우'로 손꼽힌다. 그는 "2015년 데뷔 후 지금까지 여든 작품 정도를 쉬지 않고 해온 것 같다"며 "주변에서 휴식기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쉬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일하는 것이 '에너지 충전'이 된다고 웃었다. "작품 속에서 최고의 신을 만들어냈을 때의 에너지 충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게 내 배우 생활의 원동력인 것 같다."

'스토브리그'로 S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뒤 OCN, tvN, KBS, 넷플릭스 등에서도 'SNS 축하 세례'를 받아 화제가 됐다.

그는 "상에 대한 욕심 없이 이 일을 시작했다. 상이 내꺼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얼떨떨했다. 내가 받은게 맞나 싶었다"며 "여러 방송사들의 축하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 다들 소문이를 응원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촬영했다"고 전했다.

군 복무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실 하고 있는 작품들이 너무 승승장구해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아직 시기를 정하진 못했다. 하지만 알맞은 시기에 최대한 빨리 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류승룡·박해준, '정가네 목장' 크랭크인

류승룡과 박해준이 형제로 분한 영화 '정가네 목장'(가제)이 지난 22일 촬영을 시작했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28일 전했다.

영화는 30년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소를 키우며 사는 남보다 못한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다. 류승룡이 형 만수를, 박해준이 동생 병수를 연기한다.

여기에 옹성우, 정석용, 이상희, 성병숙, 전석호 등이 함께한다.

첫 촬영을 마친 류승룡은 "깊은 울림을 주는 시나리오에 큰 매력을 느꼈다. 만수와 병수 두 형제를 보다 보면 관객분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는 영화가 되리라 장담한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해준은 "몇 달간 병수로 지내고, 류승룡 선배님과 함께 할 시간이 기대된다. 영화의 매력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 '아가씨', '독전', '콜' 등을 만든 용필름이 제작한다. 웹드라마 '퐁당퐁당 러브'로 주목받았던 김지현 감독이 연출한다.

샤이니, 오는 31일 스페셜 라이브 방송

'더 링톤: 샤이니 이즈 백(The Ringtone: SHINee is Back)' 진행

올해 컴백을 선언한 '샤이니(SHINee)'가 스페셜 라이브 방송으로 완전체 활동에 시동을 건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샤이니는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 및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 샤이니 채널을 통해 스페셜 라이브 '더 링톤: 샤이니 이즈 백(The Ringtone: SHINee is Back)'을 진행한다.

이날 방송에서 샤이니는 컴백에 앞서 데뷔부터 현재까지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눌 예정이다. 2018년 9월 발표한 정규 6집 이후 약 2년6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에 대한 스포일러도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새 앨범에 수록되는 신곡 무대도 최초로 공개한다. 정규 6집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피소드.1(The Story of Light EP.1)'의 타이틀곡 '데리러 가(Good Evening)' 및 멤버별 개성이 돋보이는 4인4색 솔로 무대까지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

래퍼 칠린호미, '심적 고통' 호소…"공황장애·불안증세"

"무분별한 악플·비난·루머 유포 등에 강경대응 할 예정"

래퍼 칠린호미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칠린호미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눈치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지"라고 남겼다. 일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또 "바른 게 바른 거다 똑바로 생각하고 XX 애들 꺼져라. 우리가 바르다고는 말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네 사리분별 바르게 해"라고 힘든 마음을 에둘러 표현도 했다.

앞서 이날 새벽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근 사망한 래퍼 아이언을 거명하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소속사 그루블린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칠린호미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린 언행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했다.

"칠린호미는 현재 공황장애와 불안증세가 점차 더 심해지고 있어 병원을 다니며 처방받은 약들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악플과 비난, 루머 유포 등에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앞서 칠린호미는 지난해 말 방송된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에 출연했다. 하지만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며 본선 무대를 앞두고 하차했다.

뉴시스

아이유, '음원강자' 명성 확인…'셀러브리티' 1위

트로피컬 하우스가 가미된 일렉트로닉 팝 장르

가수 아이유가 신곡 '셀러브리티(Celebrity)'로 '음원 강자' 명성을 확인했다.

28일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가 전날 공개한 '셀러브리티'는 발매되자마자 지니 뮤직, 벅스 등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최근 개편된 멜론 24히츠(Hits) 차트에 단시간 내 진입하면서 저력을 확인했다.

또 이번 신곡은 아이튠즈 송 차트 6개국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해외에서도 주목 받았다.

아이유의 이번 신곡 '셀러브리티'는 지난해 5월 디지털 싱글 '에잇' 발매 이후 8개월 여 만에 선보인 신곡이다.

트로피컬 하우스가 가미된 일렉트로닉 팝 장르다. '히트곡 메이커' 라이언전과 그의 크루인 클로이 라티머(Chloe Latimer)가 작곡했다. 아이유도 곡 작업에 함께 했다.

이담은 "기존 아이유의 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사사이저 사운드와 오토튠으로 구성된 후크가 경쾌한 느낌을 선사한다"고 소개했다.

뮤직비디오는 지난 디지털 싱글 '삐삐'에서 감각적인 영상으로 아이유와 호흡을 맞춘 VM 프로젝트가 연출했다.

아이유는 이번 신곡에 대해 "듣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공들여 작업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2017년 정규 4집 '팔레트' 이후 4년 만에 정규 5집을 발매했다. '셀러브리티'는 이번 앨범의 선공개곡이다.